

도시락 배달로 소외 어르신 돌봄이 10년

대광명사 봉사회 모임 '사무량심'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12월 6일 대광명사(주지 목종) 사무량심 봉사자들은 해운대 뒷골목에 위치한 우1동, 반여동 등의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 도시락을 건넸다.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손을 잡고 아픈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문은 닫혀 있는지, 필요하면 이렇게 해운대 주변의 독거 어르신이 거주하는 100여 가구에 어김없이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의 발원으로 지난 2006년 시작된 사무량심의 봉사활동이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사무량심은 그간 꾸준히 봉사자들이 늘어 부부나 가족이 함께 활동하는 회원이 생기기도 하고 비봉사자들까지 봉사하러 올만큼 지역의 대표 봉사단체로 자리 잡았다. 또한 부산 백병원 법우회 간호사들도 동참해 지역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보살필 정도로 규모면에서도 큰 성장을 이룩했다.

사무량심은 부처님의 자비회를 통해 강조하고 자비실천을 통해 수행을

완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초창기에 신도들은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려 할 뿐 배우려는 자세가 없었다. 그래서 불교대학을 열어 경전을 익히도록 했고 참선과 수행활동을 통해 수행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불교는 완성된 것이

"자비 실천은 수행의 완성"

2006년부터 도시락 봉사 등 지역 곳곳에 자비의 손길

아니라 생각했다. 사무량심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마지막 단계인 보살행 '실천'을 완성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설립취지를 설명했다. 그야말로 상구보리 화화중생을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단체가 사무량심이라 할 수 있다. 사무량심 이해는 회장(71)은 "처음에는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자 대광명사를 찾았지만 지금은 사무량심 활동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자비



대광명사 봉사회 사무량심은 10여년 간 해운대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며 자비를 실천해왔다.

를 배울 수 있게 됐다. 실천을 통해 참 지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사무량심 봉사 활동을 6년 동안 하고 있는 서경의 탐장(58)은 "봉사 자체가 수행이 되었다"며 "특히 어려운 분들을 만나며 나의 상황을 돌아보며 만족을 알고 자족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며 실천수행을 강조했다. 봉사가 부처님 자비 실천을 통한 수행 완성의 도구가 되었다면 밖으로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비 실천을 통해 수행을

사무량심은 단순히 도시락 배달 뿐만 아니라 또한 독거노인 집안 청소, 목욕도우미, 무료급식소 운영 등의 활동도 펼쳐 2009년에는 해운대구 칭찬 릴레이 4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순자 할머니(80)는 "보살님들을 만나면 진짜 가족을 만난 듯이 반갑고 기쁘다"며 "작년에는 방문 앞까지 걸어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이제는 운동을 해도 될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감사 인사

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여름이면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운대를 청소하며 지역 정화 사업에도 적극 나서 해운대 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 사무량심은 점차 지원가구를 늘리는 계획이다. 주지 목종 스님은 "지원 가구수를 2배 정도 늘려 200가구까지 도움을 드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며 계획을 밝혔다. 하성미 기자

동화사 신도회장 및 임원진 취임 법회

12월 6일 통일대불전서

조계종 제9교구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덕문)는 12월 6일 경내 통일대불전에서 제9교구 6대 신도회장 및 임원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정진제 스님, 포교부장 송목 스님, 중앙신도회 정한신 사무총장, 각 말사 소임 주지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간화선 도량에서 "새로 출범하는 임원진들

은 화합하고 결집하여 포교에 앞장서 한국불교의 중심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새롭게 취임한 손창수 신도회장은 "우리 불교계는 불자는 많으나 단결이 부족하다. 그동안 기독교계의 활발행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용서하며 살아왔다. 불자 모두가 하나로 단결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신도님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포부와 다짐을 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화사는 12월 6일 6대 신도회장 및 임원진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



문화상 서인숙 씨, 예술상 김관수 씨, 언론상 정인철 씨, 행원상 권현옥 씨, 특별상 김경문 감독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원형)는 제24회 향기로운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15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는 문화상 경남문협 고문 서인숙(83), 예술상 경남사친학술 연구원 원정 김관수(58), 언론상 KBS창원방송총국 前보도국장 정인철(57), 행원상 경남여의사회 회

장 권현옥(53), 특별상 창원 NCC다 이노스 감독 김경문(57) 등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창작지원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한편, 시민불교문화상은 종교와 관계없이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1년 창원불교계에서 제정해 시상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에서도 통일을 향한 힘찬 전진"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발대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 민주본) 발대식이 12월 7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정만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 정의화 국회의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및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 민주본 본부장 심산 스님은 "민족 통일과 남북 문제해결을 위해 불교가 적극적으로 노력 동참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복을 대 표하는 항구도시라 할 수 있는 부산과 함경북도 정진사 간의 지역적 공통성에 기초해, 부산민주본은 철보 산 개신사와의 교류 사업을 추진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발대식이 12월 7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부산 민주본은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남북 교류를 주도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산불교지도자 포럼 개최를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만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차사 대독에서 "가는 말이 고야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분단 70년을 마주한 남북 복은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서로를 자극하여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해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루

속히 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통일 보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은 "통일 정도를 실현하려는 고귀한 노력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모태이며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가 그 중심에 서야 하며 한다"고 강조 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방송 가칭범위 진주지역으로 확대

BBS 부산불교방송, FM 88.1Mhz 진주 중계소 허가

BBS 부산불교방송(사장 박순곤)의 가칭 범위가 진주를 비롯해 산청, 함양, 의령, 고성, 남해 등 서부 경남 전 지역을 거쳐 확대된다.

부산불교방송은 12월 10일 부산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진주 중계소 FM 88.1Mhz 허가 축하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수불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부산 한마음선원 선원장 해도 스님, 진각종 부산교구장정 효원 정사,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부산불교방송은 나성린·배덕광 국회의원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박무진 부산전파관리소 과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중계소 허가에 관련해 그간의 수고를 치하했다.

이날 수불 스님은 축하 인사말을



진주 중계소 허가 축하법회

통해 "부산 경남 전역을 가칭권으로 확대하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욱 발전해 앞으로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불교방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불교방송 박순곤 사장은 "가장 빠르고 품격 있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발원과 기도가 힘이 이뤄낸 성과"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해운정사 송년회 '화합 한마당'

대구 해운정사(주지 청명)가 12월 7일 뉴대구호텔 대연장에서 제5회 송년회 '화합 한마당 잔치'를 마쳤다.

해운정사 주지 청명 스님은 "잡다한 불제자로 이웃과 사회에 헌신적 봉사 활동을 해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발원한다"고 인사했다. (사)대한불교공종계종 법종 스님은 "올미년 새



해운정사 송년회 '화합한마당 잔치'

해에는 짧은 추위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새해의 포부를 다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칠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지...?"

말씀드리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즉신성불을 주시는 신비의 칠여래부처님 부산자비선원에 나투시다!

미래가 궁금하고 답답하신 불자님들은 자비선원으로 오셔서 칠여래부처님을 진견하시고, 영험을 증득하십시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칠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 다보여래부처님 : 입시·시험·고시응시생, 재만계류 해결
- 보승여래부처님 : 행복, 재물 축적, 백만장자의 지름길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결혼인연, 득남 발원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전월세, 계약체결 성사
- 이묘외여래부처님 : 암·공황장애·우울증·빙의 등 병고해탈
- 아미타여래부처님 : 극락왕생, 48가지 소원성취
- 감로왕여래부처님 : 건설·제조·사회복지 등 사업번창

칠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출연해 나타나신 큰 노스님이 주정자를 쥐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배려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두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운사를 기던 중 개구 입구에서 아주 불꽃 나는 듯생기고 단단한 돌을 발견하였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에 실고 와서 황동 색재공중에 달렸다. 석경은 "스님 이 돌을 어떻게 하려 맡았습니까?" 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다. 스님은 "이모든 세모든 티끌행이든 사자님이 알아서 다들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돌근 돌이 다들어서 왔다. 그 돌을 신중대에 올려 놓고 다계몽을 올리게 하자 울기까지 하였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급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중생을 말씀드려 큰스님이 들리고 하자 공짜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고 놀라시며 잠시 좌정을 하셨다. 새벽예불을 마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마 이 돌이 번성치 않은 돌인가 보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셨다. "왜 이렇게 신기한 힘을 발휘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시면서 정진과 각종 문헌을 찾아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는 묘색신여래부처님과 같은 대좌를 하시면서 응당을 주고 받으시며 내 불의 부처님의 응당을 받고 오아래부처님을 모시기 되었다. 말씀히 정진하던 중 두 불의 부처님과도 인연을 맺게 되어 이렇게 칠여래부처님이 화현할 도량으로 필뫼뫼했다. 큰스님은 "미래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일곱 분의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여래부처님, 둘째 보승여래부처님, 셋째 보승여래부처님, 넷째 광박신여래부처님, 다섯째 이묘외여래부처님, 여섯째 아미타여래부처님, 일곱째 감로왕여래부처님이다." 하시며 "이 모두를 칠여래부처님이라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산자비선원

문의 및 접수(단체예약도 받습니다.)
Tel : (051) 633-8445~7
 Fax : (051) 634-8446
<http://cafe.naver.com/jbsw8445>

○오시는 길 : 부산광역시 남구 정고개로 93번길 41(문현동)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 지하철 :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 버스 :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전견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